


| | | |
|--|-------------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보 도 자 료 | |
| | 배포일시 | 2017. 7. 12(수) / 총 3매(본문3) |
| 담당 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준, 전문위원 장승현 • ☎ (044) 201-4837, 4836 |
| 보 도 일 시 | | 2017년 7월 1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13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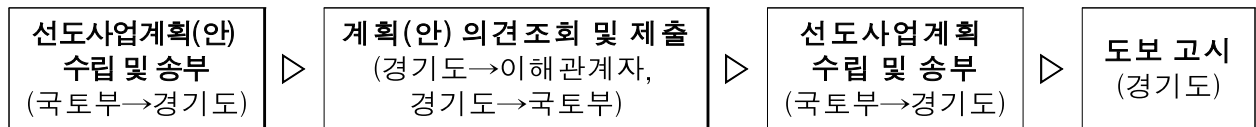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

방치된 우정병원 철거 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

-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(과천시 우정병원)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.
-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(‘14.5.23)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,
 - ‘건축투자활성화대책’(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‘15.7.9)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추진 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왔다.
-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(‘15.12월)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,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색상에 따른 경관저해,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.
 -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, 경기도, 과천시,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하였다.

- 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,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,
-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(안) 수립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금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 계획 고시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 선도사업계획 수립절차 >



□ 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

-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민 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며,
-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(미정)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또한,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,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하여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.

□ 금일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,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, 공동주택은 '18년 분양 후 '20년 준공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

- “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**광진구 공동주택도** 사업지원으로 **공사재개** 되는 등 **가시적인 성과가** 있는 만큼 **성공사례를 적극 발굴**하고 **정비사업이 확산**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**적극적으로 지원**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준 사무관(☎ 044-201-48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